

美術作品을 통하여 본 齒科医学

Depicting the treatment of a cystic tumor beneath the tongue (Japanese Woodcut 1846)

이 그림은 목판화로서 1846년도 작품이다. 술자가 환자의 口腔속 혀밑에 생긴 囊腫(낭종)을 치료하는 것을 묘사하고 있다.

일본에서 Tambo Yasiori가 1644년에 치과에 관해서 30여권의 저서를 소개한후 상당히 어려운 구강외과 수술을 하는 중요한 자료이다.

술자는 그 당시의 풍속으로 보아 승려로 생각되며 바닥에 여러가지 원시적인 수술기구가 보이며 깔이 구부러진 기구에 화로에서 불로 달구워

환자의 입에 가져가는 장면으로 소독과 마취를 동시에 실시하고 있다. 그 수술의 성공여부를 뒤로 미루고 생각해 보아도 그림속의 장면으로 보아 어느정도의 경험을 가진 시술인것 같다.

술자와 환자 외에도 동자가 칼같은 기구를 깔고 화로에 무엇인가 소독하고 있다.

술자와 환자 사이에 그릇에 무엇인가 들어있는 것을 보아서 이 수술이 어느 정도인가 진행된 것 같다.



研究와 精進을 指向하는

寶 城 合 金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465
代表 朴 允 三

☎ (253) 3411 · (255) 3024